

근친 성학대 외상을 가진 남자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for
a Male Adolescent with Trauma of Incest Sexual Assault

박 애 규*

Ae-kyu Park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the case of a male adolescent having trauma of sexual assault from his biological father in his early stage of development.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incest sexual assault had especially influenced toward the masculinity of a male adolescent having trauma. Sand play therapy has proceeded for two & half years and the patient has built 18 sand boxes out of 97 sessions. 64th session was family session with the father of the patient and 73rd to 76th sessions were family ones with the mother of the patient. This research has been through analyzing 11 meaningful sand boxes out of 18 and introduced the significant dreams of the patient. By this process, sand play therapy has proved its outstanding process so to reveal, disclose, and heal the suppressed in-depth unconscious.

Keywords : sandplay therapy, masculinity, sexual abused adolescent, incest sexual assault

* LPJ 프라이빗 상담센터 소장 (cyanfir@hanmail.net)

I. 서 론

근친 성학대 피해를 입은 남아인 경우에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한데도 이들에 대한 사례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근친 성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식세계에 떠올릴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거북하고 불편한 용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한인영 외, 2008). 또한 응징에 대한 공포,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낙인, 폭력에 따른 자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성학대 피해 남아는 성학대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식하기도 어려워하여 치료를 못받는다(Holmes, W. C. & Slap, G. B., 1998). 이러한 침묵의 공모는 폐쇄성과 비밀성이 유지되도록 작용해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udd & Herzberger, 1999;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Kelly, Wood, Gonzalez, Macdonald & Waterman, 2002). 또한 공공연하게 성학대로 피해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 신분이 되기도 하는데, 친부인 가해자가 자녀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다면 피해자는 공모자가 되었다는 낙인을 부여받기도 한다(de Young, 1982).

그렇다면 근친 동성부모에 대한 성학대를 규정할 때 문화적으로 어디까지를 성학대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친부가 친밀감의 행위로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피부를 접촉하는 것을 모두 성행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김명희는 아동 성학대를 '아동보다 연령이 많은 가해자가 정서적, 인지적, 성적으로 미성숙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인 행위(노출, 괴롭힘, 성교, 강간)를 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노출, 성적접촉, 성적착취), 그리고 성적인 환경에서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무기력'한 존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동의'나 '강요'가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어린이의 성적 경험은 어린 피해자가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있어 그 표현 방식이 어른의 성적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길들여진다. 따라서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른이 하는 것이므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어른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명희, 2002).

근친 성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한 국내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주로 성학대로 인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발달 후유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근친 성학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친부에 의한 여아의 성학대 연구에 그쳤지만, 그에 대한 피해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근친 성학대는 장단기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Rudd & Herzberger, 1999), 집중력 저하와 문제해결능력이 저하(Johnson, 1989)되고, 더 나아가 가출 및 비행과 연결되거나(McCormack, 1986) 성인까지의 애착형성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Alexander et al., 1998). 피해자들의 특성으로는 분노, 수치심, 정서적 혼란(Kelly et al., 2002), 부모화, 성적 행동(Sanders, 2000), 재희

생화(Aleers et al., 1992), 자기비난과 과거에 대한 회피반응(Spaccarelli, 1994)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근친간 성학대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연구들이 성학대 피해 소년들에 대해 보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은 영향으로 성적체감 혼란, 남성성 회복에 대한 부적절한 시도, 그리고 희생당한 경험의 재현으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해당된다(Roger & Terry, 1984). 성학대 남자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통제그룹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7배가 높았고, 양성애자 비율은 6배가 높았다고 한다(Shriere & Johnson, 198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동성애 혐오자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Sebold, 1987). 또한 공격적인 행동(Darves-Bornoz et al., 1998), 자기조절의 어려움(Friedrich, 1995), 식이장애(Chandy et al., 1997), 낮은 신체상(Sebold, 1987)을 가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와 상징적인 피겨 등을 사용하여 인간의 무의식적인 내면을 표현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고 자아를 강화하며 문제행동을 치유해 가는 한 방법이다(Kalff, 2003).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고통은 무감동과 유아로의 퇴행을 일으키는 자아 부재 형태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래놀이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은 삶의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게 해준다(Turner, 2005/2009). 더욱이 치료자가 제공하는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이 내담자로 하여금 유아기의 정서와 경험으로 퇴행하게 해주어(Winter, 1999) 모래놀이치료는 유아기의 생활 경험과 관련된 문제행동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는 문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내면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장현숙, 2013).

청소년은 소년에서 성년이 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가 필요하다. 성인과정을 통하여 소년은 남자가 되고 소녀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Jung은 개인이 개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진정한 자기 자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심리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Jung, 1984/2002). 특히 자아의식이 성장하고 발달하여야 하는 시기에 어머니와의 심리적인 분리가 중요한데 Jung은 "남성의 전체 본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성성을 전제로 하고 남성의 체계는 선택적으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Jung, 1984/2004, p. 87). 따라서 남성성 발달은 무의식의 여성성 즉 아니마 발달을 포함하며 아니마 발달은 남성성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Jung, 1984/2002)고 하였다. 모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자신의 고유한 남성성을 분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Jung의 제자로 분석심리학자인 Neumann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에게서 나와서 세계로 입문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춘기는 재생의 시기로 이것을 용과 싸우며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웅에 비유한다. Neumann은 남성성 발달을 태모의 곁에서 정복당한 남성성의 노예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즉 용과 싸우는 영웅의 신화로 묘사했다. 이 과정에서 남이는 아

버지를 동일시하며 남성성 발달을 이룩하게 된다(Neumann, 2004/2007). 이 초기 단계 동안 자아는 모권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시작한다. 이 때 의식적인 자아는 남성적 에너지와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상처나 지체가 일어날 때, 의식적 자아는 여성성에 의한 지배에 고착된 상태로 남겨진다. Neumann은 이것을 모권에서 부권으로의 전이 실패, 또는 무의식적 상태에서 완전히 발전된 의식발달 상태로의 전이 실패라고 하였다(Neumann, 1973). 이렇듯 남성성 발달에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 자아발달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이 시기에 용과의 싸움에서 여성적 심혼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원초적 순환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자기제한성은 여성과 인류와의 관계성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 과정을 분석심리학에서는 모성 원형에서 아니마를 분리하는 것으로 다룬다(Neumann, 2004/2007).

본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근친 성학대 외상으로 인해 남성성 발달을 저해 받은 남자 청소년 내담자가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어떻게 남성성이 회복되고 발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남성성 발달을 영웅신화로 대입하여 해석한 Neumann과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Neumann은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발달 단계를 세분화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구분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II. 사례개요

1.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 및 의뢰경위

내담자(18세)는 176cm 정도의 훤히한 키에 잘생긴 얼굴의 보통 고등학교 남학생인 외모를 지녔으나, 눈맞춤을 잘 못할 정도로 외모와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매우 없었다. 특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 이상해요?"라고 묻는 등 불안감이 높은 내담자였다. 내담자는 특목고 1학년에 다니는데, 여름방학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있고, "휴학하고 싶다. 죽고 싶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등의 말을 하여 부모님의 권유로 내원하게 되었다.

2. 주호소 및 사례배경

내담자가 첫 회기에서 이야기한 주호소 문제는 성적체감의 혼란과 대인불안과 손을 여러 번 씻는 강박 증상이었다. 내담자는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여 생후 놀이방 할머니가 맡아 키웠다. 돌 전에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놀이방 할머니가 키웠다. 특히 내담자 모의 보고에 의하면 본인이 간호사로 매우 바빠서 집에서는 주로 영어 비디오를 틀어 주었다고 한다. 내담자는 말을 할 나이가 되서도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도 반응이 없어 어린이집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발달상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말이 없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 주로 1-2명의 친구를 사귀고 운동 보다는 피아노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녔으며 여성적인 성향을 주로 나타내었다. 내담자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내담자에게 “여자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학급 친구가 “그래. 이 게이야”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여 내담자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내담자는 “성정체감 혼란이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혼란은 아버지에 의한 성적인 트라우마와 관계있다.

내담자가 어릴 적, 몇 살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매우 어렸을 때부터 9살 때까지 아버지가 내담자의 성기를 만져주었다고 한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꿈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3살 때부터로 추정된다. 때로는 내담자가 아버지의 성기를 만진 기억도 있다. 내담자는 이 기억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내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으니 내 잘못이 아니냐”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자친구들과 잘 어울렸었고, 여자친구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게이가 나오는 야동을 보게 되면서 여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특히 남자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보고하였는데 “친구가 많이 없다. 1-2명 있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다”고 한다.

내담자는 모래놀이치료를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강박증이 더욱 심해졌다.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책상에 앉는 것도 찢찢해서 매번 닦고 휴지를 깔고 앉았으며 이런 강박증상으로 인해 이동수업이 있는 날이면 더욱 긴장하였다. 치료를 진행하며 강박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은 억압했던 부정적 정서가 올라오면서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3. 가족배경

내담자 아버지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다보니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문대에 들어가도록 자주 압박하였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분노와 적대감을 유발하는 편이다. 게다가 성적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는데, 내담자가 어릴 때 학원을 안갔다고 심하게 혼내고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집을 서울대 앞에 사놓고 "너희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이사가려고 한다"는 등 자녀들에게 압박감을 심하게 주었다. 내담자는 그나마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으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경쟁이 치열한 특목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마저도 유지되지 않자 존재감을 확인할 장치마저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바빠서 내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녀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었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의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게다가 "남편과의 관계가 나빴다"고 한다.

내담자를 주로 돌본 사람은 세 살 터울 누나였다. 누나 또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 누나는 내담자와 다르게 감정 표출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어머니의 방치와 무능한 관계능력에 분노감이 매우 큰 사람이었다. 내담자가 누나에게 받은 스트레스도 높았으나 누나가 그나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어서 이 스트레스 또한 표출되지 못하고 거의 억압되어 있었다.

4. 사례개념화

내담자는 학교 부적응과 강박증, 성정체감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은 내담자의 초기 어린 시절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 있다. 초기 어린 시절 어머니는 보호와 돌봄을 제공해주지 못했고, 아버지는 초기 유아기부터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성학대했다. 그러나 내담자는 성학대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한 정서적 표현과 수용력이 결핍된 미숙한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불안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게 된다. 게다가 내담자의 아버지는 성적에 있어서는 매우 혹독하고 강압적이어서 폭력적으로 분노를 폭발했다가 금세 미안해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내담자는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분노와 우울이 오랫동안 쌓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근친 성학대를 경험한 남아의 특징인 침묵하는 즉 억압하고 누르는 상태가 지속되어 극심한 강박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내담자는 중학교 때까지는 학업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해 왔으나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마저 실패하게 되자 더욱 부적응적인 상태가 되었다. 내담자는 이러한 내면의 불안과 성정체감 혼란의 원인인 심리적 외상을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의 자아발달과 더불어 남성성의 분

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본 사례연구는 연구자의 윤리적 접근 노력에 따라 내담자와 어머니의 동의를 구한 후 공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Ⅲ. 모래놀이 치료 과정

내담자는 약 2년 반 동안 97회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18개의 모래그림을 만들었다. 초기엔 거의 매번 내담자 상담 뒤에 어머니 상담을 10여분 진행하여 총 30회를 오셨다. 그리고 전체 회기 중 64번째 회기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가족상담으로, 73회기부터 76회기까지 4회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가족상담으로 진행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회기 순서대로 인상적인 회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모래장면, 인상적인 꿈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Neumann의 자아발달 단계에 따라 모래상자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1. 1단계 자아발달: 남근기적-지하세계의 단계 (1-7회기)

Neumann의 자아발달 1단계는 남근기적-지하세계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아가 자기(self)로서의 대모와 연결되어 있는 여전히 모권적 세계이다. 심리적 모권세계는 무의식이 지배적인 시기로 의식이 아직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한 시기이다(Neumann, 1973).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궁 안에서의 낙원적 상태는 전지전능성과 무력감으로 묘사된다(Turner, 2005/2009).

첫 회기에서는 내담자와의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2회기에 내담자는 첫 모래상자를 만들었다.



사진 1. 모래사진 1 (2회기)

첫 번째 모래상자에서 Neumann이 말한 남근기적-지하세계 단계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왼편 위쪽의 식물과 동물들이 놓여있는 풀밭은 낙원과도 같다. 또한 남근의 모양과도 같이 보이는 동물들은 Neumann이 이 단계의 특징으로 말한, 신화에 등장하는 대모의 동물 동반자로 남근적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과 일치한다. 또한 오른쪽에 배열된 미라, 피라미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력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Neumann, 1073). 그럼 모래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모래상자를 만든 후 내담자는 “피라미드는 안가봐서 골랐고...” 라며 피라미드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했다. 모래상자 오른쪽에 미라, 피라미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있다. 이는 모두 왕의 죽음을 뜻한다. 왕은 남성성 발달의 첫 번째 단계인데(Moore & Gillette, 1991/1997) 왕의 무덤은 남성성이 모두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다. 즉 소년이 건강한 남성으로 발달하지 못하도록 고착되어 있는 무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무덤은 부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제 내담자에게서 다시 태어날 남성성을 의미하기도 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보인다. 조각난 경험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내담자는 “교회는 죄책감이 생겨서 가기가 어렵다”고 고백했다. 모래상자에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동력과 가치관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처럼 내담자는 고통 가운데 있다(Weinrib, 2004).

모래상자 아래쪽에 위치한 의자 위의 피겨들을 보자. 모차르트라고 이야기했던 서양남자, 쿠키 맨, 그리고 중앙에 남녀 한 쌍이 있다.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그의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 부성을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의 집착 때문에 오히려 그는 성적으로 매우 방종했다. 이는 본능적이고 감성적이며 심지어 방종으로 치닫는 내담자의 그림자적인 측면이겠으며 내담자의 성에 대한 혼란과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 쿠키맨은 먹음직스러워서 놓았다고 한다. 내담자는 늘 “배고프다”는 말을 달고 다녔다. 심리적 허기를 뜻하는 ‘배고픔’은 고통에 대한 핵심 상징이다(Turner, 2005/2009). 쿠키맨은 서양의 동화에 나오는 진저브레드이며 도망치는 주인공으로 나온다. 현재의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은 내담자의 충동적인 면과 고통을 나타내고 또한 도망치고 싶은 내적 실제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의자의 가운데에는 흥미로운 남녀 한 쌍이 있다. 여자 피겨는 영화 ‘토이스토리’(1995년 픽사가 월트 디즈니와 함께 제작한 최초의 장편 컴퓨터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제시이다. 제시의 엄청난 말괄량이인 가축몰이 소녀 인형이다. 이는 내담자의 잠재된 애니마를 나타낼 수 있는 피겨이다. 다행히 내담자의 이면에는 주인에게 버려진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나 활기찬 제시와 같은 애니마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옆에 남자 소년 피겨는 ‘마르코는 아홉 살’이라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소심한 캐릭터인데 우스꽝스럽게 생기

고 축 쳐진 모습을 하였다. 이 모습은 아홉 살까지 겪은 성학대로 인해 낮은 자아상을 가진 현재 내담자 내면의 자아상과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의자 위에 몸에 비해 머리가 매우 큰 애꾸눈의 해적이 앉아 있다. 해적은 남의 것을 강탈하며 특히 보물을 뺏는 자이다. 보물은 무의식의 심연에서 찾은 '자기'를 상징한다. 이 보물을 빼앗아 간 애꾸눈에게서 내담자는 보물을 찾아야 한다. 이 애꾸눈 선장은 부정적으로 과하게 부풀려진 남성성의 상징이며, 부정적인 아버지-이마고를 나타낼 수 있겠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크다는 것은 내담자의 욕구보다는 학업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왜곡된 애정표현(내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이 어떤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다. 두 건은 그러한 자신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Cooper, 1978/1994). 뿐만 아니라 한쪽 눈을 상실한 애꾸눈이며 상실된 눈은 왼쪽 눈이다. 눈은 보는 기관이며 왼쪽은 감정, 무의식을 가리키는 방향이다(Bradway, 1991). 이 보물을 빼앗은 해적은 무의식, 감정 즉 자신의 아니마와 연결되는 눈을 갖지 못한 미숙한 남성성이며, 내담자의 아버지와 같은 측면이겠다. 그는 이렇게 잃어버리고 빼앗긴 측면을 앞으로 통합해야 한다.

모래상자의 왼쪽을 보면 초록색의 커다란 사각형의 풀밭이 있다. 사각형의 구조물은 발달되어야 하는 자아 에너지와 정적인 완전함, 항상성, 통합을 의미한다(Cooper, 1978/1994).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안정한 관계를 가진 내담자가 사각형을 통해 안전함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이 초록색의 커다란 풀밭을 통해 안정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갈망으로도 나타난다. 초록색은 풀의 지배적인 특성이며, 생명력, 희망,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능력, 치유 및 그리움과 관련이 있다(Brennan, 1987).

풀 밭 위에는 돼지, 팬더, 토끼가 있다. 동물들은 본능을 나타낸다. 돼지는 풍요의 상징이며 번영을 나타내지만 탐욕, 정욕, 노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Cooper, 1978/1994) 무지와 무의식성을 상징한다(Jung, 1991/2002). 팬더는 특히 늘 놀고먹는 동물이다. 토끼는 일반적으로 쉽게 불안해하며 공포에 빠지는 동물(Kast, 1994/2007)로 또한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동물로 성학대를 받은 환자들의 작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Carey, 1999/2002). Cecil Burney는 토끼가 동성애를 상징한다고 했다(Bradway, 2001). 토끼는 내담자의 모래상자에서 여러번 등장한다. 풀밭 위에 있는 동물들은 내담자의 억압되어 있던 본능과 성적인 문제들이 수용되고 보호되길 바라는 갈망인 듯하다. 풀 밭 위에는 보석나무와 풍차도 있으며 흡사 낙원과도 같다. 이 풀밭은 게다가 아래쪽의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다.

모래상자 중심에는 폭포와 집과 다리가 놓여있다. 폭포 가운데에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폭포의 물줄기로 단절되어 있는 양극이 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폭포는 영어로 fall이다. fall은 낙하, 추락, 타락이라는 뜻이 있고 낙원의 상실이라는 상징이 있다(Ackroyd, 1993/1997).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 추락하는 물줄기는 리비도의 하강, 즉 무의식으로서의

하강과 더불어 낙원의 상실을 상징할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내담자는 무의식으로 하강하여 내면의 에너지가 있는 그 무의식을 인식함으로써 자기로 향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왼쪽의 무의식 상태의 낙원이 상실되어 추락한 상태는 오른쪽의 왕의 상실과 죽음이다. 폭포에도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단절된 이 두 세계가 미약하나마 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 다리의 아래쪽에는 집이 있는데 서울대의 집을 연상케 하는 단독주택이 나온다. 내담자는 이 집을 보면서 “아빠는 우리가 서울대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대 앞에 집을 사냈다.”고 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자아가 도달해야 하는 이상이며 페르조나를 가리킨다. 이상이 높을수록 자아의 무력감은 더 크다.

이 집 아래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 모래상자에서 다리가 세 개처럼 보인다(의자 두 개, 다리). 실제 내담자는 ‘라인’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늘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연결’이라는 뜻의 라인은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내담자의 소망이며 또한 내담자가 앞으로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첫 번째 모래상자를 통해 내담자는 앞으로 무의식의 하강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아니마를 통합해가며 빼앗긴 보물, 즉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성학대로 인한 상처가 폭로되고 재인식되어야 내담자의 분열된 자아는 결국에는 연결될 것이며 동시에 내담자는 이상적 페르조나가 아닌 진정한 자기로 살 수 있게 되며 이 때 평안과 안정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사진 2. 모래사진 2 (3회기)

첫 번째 모래상자를 만든 바로 그 다음주 두 번째 모래상자를 만들었다. 3회기에 내담자는 치료실에 들어오면서 “다음주에 수학여행을 단체로 간다”며 이 기회에 아이들과 어울려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학여행 갈 생각에 들뜬 기분을 이야기하였다. 모래상자를 만

들면서는 고래를 상자에 가져다 놓고 특별히 청 푸른 바닷 빛의 고래를 계속 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고래는 순수하다”는 말과 함께 “고래를 보니까 포경수술이 생각난다”고 한 내담자의 이야기에 치료자는 남근이 떠올랐고,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연상되었다. 고래는 남성적인 에너지가 깊은 바다인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Kalff, 2000/2012). 고래는 또한 어머니 또는 일반적인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고래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은 영웅 신화에서 대단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징한다.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내담자는 보석이나 기타의 보물로 표현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Ackroyd, 1993/1997). 이는 성에 대해 억압되어 있는 내담자의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필요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무력한 상태를 볼 수 있다.

모래상자 왼쪽 아래에 연꽃이 있는데 피어나는 연꽃은 여성적 수용원리의 잔을 나타낸다. 물에서부터 피어난 연꽃은 태양(남성성)과 연결해 준다. 본능과 생명을 담아주었던 풀밭은 모래상자 #2에서도 오리, 백조, 펭귄과 같은 동물적 본능을 담아주는 여성적인 원리인 연꽃으로 나타나며 모권적 상태인 낙원을 연상케 한다.

2. 2단계 자아발달: 마술적-남근기적 단계 (8-42회기)

2단계에서 나타나는 마술적 이고는 선프로부터 분화되면서 팽창된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험과 행위의 객관적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Neumann, 1973). 이렇게 팽창된 이고는 마술적인 신화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8회기의 슈렉 캐릭터가 팽창된 이고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때 나타난 이고는 여전히 무의식적이고 신화적이고 마술적인 특성이 있다.



사진 3. 모래사진 4 (8회기)

그 다음주 수학여행을 간 그는 막상 수학여행에 가서 친구들과 순탄하게 어울리지 못했고 특히 어떤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고 한다. 그 이후 손 씻는 행동이 늘어났고 학교에서는 무려 30회 정도 손을 씻는다고 한다. 이날 내담자는 “아이씨, 마음에 안들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모래상자를 만들었다. 모래상자에는 슈렉과 침대와 피아노가 등장한다. 슈렉은 초록색의 못생긴 괴물 캐릭터이다. 저주에 걸려 용이 지키는 높은 성에 갇혀 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해주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슈렉은 성 밖 늪지대에 사는 엄청나게 못생기고 진흙 위에서 뒹구는 무지무지하게 큰 괴물이지만, 피오나가 기다리는 그 키스를 해주는, 용을 죽이고 저주에서 풀리게 하는 ‘그 남자’로 나온다. 이 이야기는 아니마를 해방시켜주는 치유의 과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민담스토리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엄청나게 큰 슈렉은 팽창된 자아, 못생긴 자아, 열등감 있는 자아를 상징하지만 용을 죽이고 아니마를 해방시켜줄 치유의 메시지이며 잠재된 내담자의 영웅적 측면이다. 또한 가운데에 초록색의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한다. 내담자의 아니마는 아직 살아있는 여성으로 등장하지 않고 조각의 무생물로 등장한다. 그 여신도 치유의 초록색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활성화될 아니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좌측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피겨들은 전혀 분화되지 않은 가족관계를 나타내 주는 듯하다. 가족 바로 위에 줄무늬 침대가 비스듬히 놓여있다. 침대는 모래상자 #1에 머리가 큰 애꾸눈 해적이 앉아 있던 비치의자와 동일한 모양과 색상이다. 침대는 내담자가 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한 곳이기도 하다. 가족 간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엄마는 내담자와 아빠와의 비밀스런 성적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남성성에 대한 혼돈과 혼란을 상징하는 어릿광대가 모래상자 #4에서는 혼돈스러운 여성의 가면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정적 아버지 이마고를 극복해야 대인불안과 강박적 습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모래상자는 매 회기 반복적으로 성학대와 관련된 무의식의 여성성, 즉 아니마 상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 모래사진 10 (26회기)

26회기에 내담자는 “교실 맨 뒤 미닫이 문 옆에 앉아있는데 반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불편함과 불안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숨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더럽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그로 인해 손 씻는 강박적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모래상자에 네 개의 피겨가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내담자는 불안한 고통 속에서 여전히 안전을 갈구하는 듯하다. 내담자는 “어릴 적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했었다. 그는 불편한 어린 시절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을 것이다. 이 날 내담자는 모래상자를 만들고 “제주도이다. 이 하얀 집은 정신병원이다. 평화로운 곳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다. 물고기는 자유롭게 있어서 놓았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해상에 있는 화산섬이다. 섬은 격리와 고독의 장소이자, 또한 혼돈의 바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Cooper, 1978/1994).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의 반영이자, 혼돈의 무의식으로부터 안전하게 피난하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다.

모래상자의 가운데에 남근 모양의 돌하르방이 있다. 돌하르방은 구멍이 숭숭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이다.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이 성문 밖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외부의 사악함을 방지해준다. 한국의 집단무의식을 살짝 건드려주고 있는데 이는 내담자가 불안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느껴진다. 동시에 돌하르방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남근모양의 검은 돌이 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남근은 남성적 창조원리, 잠재력,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며 마귀를 쫓는 힘을 가진다(Cooper, 1978/1994). 또한 생명과 리비도의 원천이면서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다(Jung, 1985/2005).

또한 이 돌은 검은색인데 검은, 니그레도는 연금술 작업의 첫 단계이다. 이는 암흑의 체험이며 심리학적으로 그림자와의 조우에 상응한다. 검은색은 ‘원질료’나 혼돈, 혹은 ‘혼돈의 덩어리’의 속성을 지닌 시초의 상태이다(Jung, 1985/2004). 이것은 내면의 빛으로 관찰하고 통합해야 할 무의식의 어둠이다. 아직 어둠 가운데 혼돈 속에 있는 내담자의 내면에는 바로 마귀를 쫓는 신성성, 창조력, 생명력, 힘과 풍요를 가지고 있는 수호신이 있다.

돌하르방의 양쪽에는 평화로운 집과 정신병원이 있다. 오른쪽의 정신병원은 강박증으로 인한 내담자의 병약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무의식의 지하방에 가두어 둔 채 비생산적인 실재로 정죄해 온 내담자의 일부분일 수 있다(Ackroyd, 1993/1997). 그리고 왼쪽에는 평화로운 집이 있다. 집은 자신의 상징이다. 의식적인 측면에 병약한 자신이 있다면 보다 무의식적인 방향에는 평화로운 자신이 있다. 이 모래상자에서는 전반적으로 검은, 용암의 돌, 물 등 무의식의 심혼에 있는 재료들이 나타났다. 이제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바다 깊은 곳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다음 치료시간인 27회기부터 내담자는 강박증이 더 심해져서 피겨를 휴지로 잡아서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강박적 행동이 심해질수록 모래상자는 억압된 비밀을 폭로하도록 치닫고 있다. 암흑 속에 가두어 둔 무의식의 세계가 보호

되고 수용되고 마침내 의식의 전면에 드러날 때 물고기, 즉 그의 self, 자기 에너지는 내담자의 이야기처럼 자유롭게 될 것이다.

3. 3단계 자아발달: 마술적-호전적 단계 (43-65회기)



사진 5. 모래사진 13 (43회기)

Neumann은 이 단계 동안 자아가 모권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여성성으로부터 남성의 에너지를 분리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의식적인 자아는 남성적 에너지와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아간다. 남성적 에너지와 같은 자아의 성장은 자신을 유지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용과 맞서 싸워야 한다(Turner, 2005/2009).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싸움은 내담자의 모래상자에서는 마술적인 피아노의 격렬한 싸움으로 나타난다.

“탈출하고 싶다. 울고 싶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학교가기 싫어하고 조퇴를 자주 했던 내담자는 이제 2학기가 되어 개학을 맞이하였다. 2학기가 되면서 그는 학교생활에 이전보다 잘 적응하기 시작했고 “학교 졸업을 잘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다. “학교에 다시 가면 짹짹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또한 친구에 대한 질투나 분노 등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담자는 8개의 피겨를 모래상자 중심에 원을 그리 듯 놓았다. 이 중 피아노 두 대가 눈에 띈다. 피아노가 강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피아노가 놓여있는 모습은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협연할 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며, 마치 태극 모양에서 빨강과 파랑이 맞닿아 있는 곡선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극 모양은 고대 태극도에 그 유래가 있으며 태극 곡선을 생명선이라고도 한다(주역상 11. 태극도와 원시천상실측. <http://blog.daum.net/windada11/8750639>). 피아노는 내담자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니마의 상징이겠다.



그림 1. 태극도

<http://blog.daum.net/colorplaying/2475140>

흥미로운 것은 이 피아노의 모양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2007, 주결륜 감독)에서 나오는 피아노 배틀 장면과 일치한다. 피겨를 놓으며 내담자는 영화 이야기를 했다. 영화에서 피아노는 남자주인공 상룡과 여자주인공 샤오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과거 시간의 샤오위가 피아노로 '비밀'이라는 곡을 연주하면 시간여행이 시작되고 미래의 상룡과 사랑에 빠진다. 피아노 배틀 장면에서 연주하는 곡은 쇼팽의 [연습곡] 중 '흑건'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검은 건반으로만 연주하는 이 흑건을 영화에서 흰 건반으로 변조해서도 연주한다는 것이다. 이제 어둠에 숨어 있던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듯했다. 이 장면은 내담자 내면의 극심한 갈등을 나타내 주고 있는 듯하며 이 싸움을 통해 무의식의 어둠에서 벗어나 자각의 빛을 향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제 내담자는 그의 무의식과의 싸움을 통해 성장하고 승리하는 영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후 내담자는 반 친구들과 이전보다 말도 많이 하고 인간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림 2.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사진 6. 모래사진 14 (48회기)

48회기에 내담자는 등교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와 주로 영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이 날 내담자는 문손잡이를 손으로 열고 기운차게 치료실로 들어오면서 “문손잡이를 잡기 시작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손으로 피겨를 잡아서 놓으면서 “찝찝해, 하지만 괜찮아”라고 혼잣말을 하며 모래상자를 만들었다. “이 기차 길은 뭘까? 이 기차 길이 끝이 없네. 2호선이네. 막혀있어서 뭔가 단절되었다고 하나. 안에가 내 마음이고 경계선이고 나무는 현실인거 같다. 평화롭다 하나. 현실에 다가가기 힘들다. 이 차가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형의 기차길은 마법의 원을 연상케 한다.

마법의 원은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의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마술적 수단이다. 그것으로써 비밀로 인해 고립된 모든 사람에게 엄습하는, ‘영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반대로 그러한 수단은 어떠한 장소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킬 때 사용된다. 하나의 안전한 테메노스, 즉 무의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금기구역 을 만들어낸다. 그로써 전에는 무시무시했던 고립 상태가 공포스러운 성격을 벗게 된다. 이는 연금술 작업 과정의 원료인 ‘꼬리 먹는 동물’ 우로보로스이다(Jung, 1991/2002). 이러한 상징성의 출현은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로보로스적 상징은 ‘자기’를 향하여 발전해갈 때 출현한다(Neumann, 2004/2007). 이 마법의 원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오른쪽에 소나무가 등장한다. 내담자는 소나무를 보면서 “나무는 현실인거 같다. 평화롭지만 다가가기 힘들다”고 표현했다. 우로보로스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담자의 과제이지만 아직은 다가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울타리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원 안의 것들은 보호받고 있다.

소나무는 직립, 곧바름, 활력, 고독을 나타내며 남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나무에게 아직은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내담자의 고백이 현실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모양은 Edinger(1992)가 말한 ‘자기’와 ‘자아’의 연결축이 없는 상태, 손상된 상태를 보여주기도



그림 3. 우로보로스
<https://ko.wikipedia.org>

한다. 우로보로스 안에 있는 무의식의 요소들이 수용 받고 난 후, 이 축은 연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 기차길에 Oil Can이라고 쓰여 있는 기름을 나르는 기차가 있다. Oil 기름은 헌신, 영적 광명, 자비, 풍요의 상징이며 기름을 바르는 일은 새로운 신적 생명의 주입, 신의 은총의 증여와 지혜의 수여를 상징한다(Cooper, 1978/1994). 성장의 길로 연결된 내담자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고 힘이 운반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래 상자를 만든 날, 상담의 말미에 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계속 말하지 못했던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좋아하는 형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한다"고 한다. 내담자는 죄책감이 컸기 때문에 거의 끝날 즈음에 그 말을 꺼냈고 어찌면 늘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날 모래상자를 보고 치료자는 변화의 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검은 철길 레일로 보호되어 있는 피겨들, 뚜렷한 원형의 철길, 그리고 소나무는 치료자에게 어떤 경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다음주 49 회기 때 내담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아빠에 의한 성학대 기억을 폭로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줬다고 했다. "내가 아빠에게 만져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빠의 성기도 내가 만졌던거 같다"고 한다. 몇 살부터였는지는 생각이 안나고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까지 계속 그랬던거 같다고 했다. "내가 만져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에요"라고 말한 내담자에게 치료자는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 대한 성학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해주었고, 부모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해주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는 듯했다.

그리고 50회기에 와서는 "지난 주 상담 때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 집에 가서 화가 났었다"고 했다. 51회기 때는 꿈에 거북이가 나왔다. "거북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10마리 정도 되었는데 나는 그걸 보고 있었다"고 했다. 한 주간 꿈을 20개를 넘게 꾸었다고 한다. 거북이는 심해와 육지를 넘나드는 무의식의 중재자이다. 그리고 52회기에서 인상적인 꿈을 꾸었는데, "장소는 지하였다. 주차장이었나? 근데 차는 없었다. 왼쪽 위 코너에 문이 있었고

계단으로 통하는 문인줄 알았는데 연결된 계단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던 것 같다. 왼쪽 벽에 불빛이 있었다. 기둥이 있었는데 원형 돔의 배열로 7개가 있었다. 주차장에 있는 사각 기둥같이 생겼었고 글씨가 뚜렷하게 써 있었다. 3, 4, 5, 6, 7, 8, 9 라고 한 기둥에 한 글자씩 써 있었다."고 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학대가 3세부터 9세까지 7년간 지속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의식은 정확하게 말해주었다. 은폐되어 있는 암혹 같은 지하실의 이야기를 지하와 땅을 연결해 주는 기둥에 뚜렷하게 새겨 그 기억을 의식으로 올려주었다. 그리고 이 외상을 극복해야만 발달에 적합한 전체성을 이룰 수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63회기 오기 전, 내담자는 엄마에게 아빠의 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머니 면담에서 치료자와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사실 놀란 상태였었고,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빠가 상담에 함께 할 필요가 있음을 동의하셨다. 그리고 64회기에 내담자의 원함에 따라 아빠와 내담자와 함께 하는 가족 상담으로 진행했다. 가족 상담에서 아빠는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하면서 많이 울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 잘못이 아니다. 모두 아빠의 무지한 탓이고 아빠의 잘못이다. 그런 행동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줄 몰랐다"고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다.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의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은 내담자에게 매우 유익했다. 모성원형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남성성 발달을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가 중요한데 내담자에겐 아버지가 성적 학대자였기 때문에 내담자의 남성성 발달에 문제가 생겼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아버지의 남성적 모습이 내담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치료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4. 4단계 자아발달: 태양적-호전적 단계 (66-85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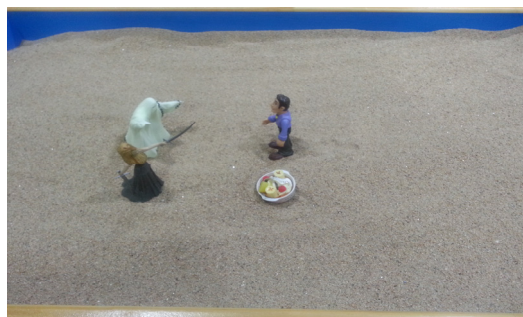


사진 7. 모래사진 15 (66회기)

이 단계에서 자아는 여성적 원리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모권적 요소보다 남성성, 아버지와 동일시, 남성집단 내에서 남자들끼리의 지지에 의해 강화된다(Neumann, 1973). 내담자는 아버지와 만남을 통해 죄책감이 완화되었고, 분노의 감정이 상당부분 치유되었으며 자기 감정 노출에 보다 자유로워졌다. 66회기에 내담자는 “지난번 좋아하는 형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그 형이 지방대 체육학과에 갔다.”고 말하면서 유평피겨에 대해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유평”이라고 한다. “이 귀신과 만나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칼을 든 여자는 여자친구이다. 이 남자가 동성애자가 되는 걸 막는 게 아닐까?”라고 말한다. 이제 동성애에 대한 혼란이 전면으로 드러난다.

유평은 원시적인 귀령이며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표현이다. 이런 콤플렉스는 특히 남성성에겐 모성원형이며 여성성 즉 아니마이다. 마녀피겨는 나니아 연대기(2005년, 앤드류 아담스 감독)에 나오는 하얀 마녀 피겨이다. 이 칼은 상대를 석화시킬 때 사용하는 무기로 나타난다. 모래상자에서는 이 칼을 남성 피겨를 향해 들고 있다. 동성애적 충동을 없애려고 하고 석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내담자 내면의 전쟁 상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머물러 있고 싶은 충동에 묶여 있는 무의식적 차원의 싸움, 갈등을 말해주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이전의 ‘얼어붙었던’ 정신 에너지나 정서가 자유롭게 유동하는 기쁨을 상징하며, 바나나는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성적 상징이다(Ackroyd, 1993/1997). 이 세 개의 갈등이 극복되는 것은 이전에 얼어붙었던 성적 갈등이 풀림으로써 정신 에너지가 자유롭게 유동한다는 상징이며, 이러한 갈등이야말로 내담자의 온전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Dora Kalff는 내담자의 정신적 전체성이 발달함에 따라 사각형 혹은 4개의 단위들이 모래상자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했다. 사각형이 나타나는 것은 질서를 향한 정신의 추동이 막 피어난 것이 구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각진 도형은 좀 더 남성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Turner, 2005/2009). 이제 내면의 질서를 구현하는 남성적인 에너지가 피어오르고 있다. 내담자는 이 모래상자(#15)를 한 이후 2주 뒤, 68 회기 상담시간에 지저분한 게임도구로 게임을 실했 하면서 강박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후 73 회기부터 76 회기까지 4회에 걸쳐 어머니와 함께 하는 가족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때 어머니께서 “네가 동성애자가 된다 하더라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하셔”라는 말을 하시며 많이 우시고, 내담자를 안아주셨다. 내담자는 어머니의 포용이 어색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안심했다.



사진 8. 모래사진 16 (77회기)

77회기에 모래상자를 만들면서 내담자는 “분노를 따라서 길을 만든 거다. 세계가 펼쳐졌다. 편안함의 세계가”라고 말하며 분노의 상징으로 화산을 가져다 놓았다. 이제 분노와 억압되어 있던 어린 시절의 좌절된 성적 측면이 연결되었고 그것은 내담자를 평화로움으로 이끌었다. 이 화산은 위에서 보면 태양과도 같은 형태이다. 내담자의 감정과의 연결을 통해 태양, 즉 남성성과 어린 시절이 연결된 것으로도 보인다. 어린 시절은 미끄럼틀과 정글짐으로 상징화되었는데, 두 놀이기구 모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놀이에 빠지는 특징이 있다. 어린 시절에로의 하강과 상승 두 측면을 모두 말할 수 있겠다. 정글짐에서 ‘정글’은 무의식의 상징이다. 그 속에서 야생적으로 살고 있는 것들은 아마 무시당하고 무질서하며 반항적인 ‘동물적이거나 본능적인’ 충동들을 의미하거나, 또는 억압된 죄책감과 두려움들을 의미할 수 있다(Ackroyd, 1993/1997). 이 다리는 모래상자 #1에서도 이 방향으로 놓여있어서 내담자와의 연결을 촉구하는 듯했고 여기서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했었는지 드디어 나타났다고 보여 진다. 내담자는 이날 모래상자를 만들고 난 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5. 5단계 자아발달: 태양적-합리적 단계 (86-97세션)



사진 9. 모래사진 17 (86회기)

마지막 단계는 자동적으로 자기를 향해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세상에서 그 자체로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는 의식적이고 발달된 자아를 가지는 단계이다(Turner, 2005/2009). 강박증이 사라지면서 내담자는 학교에 수월하게 다니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86회기에 모래상자를 만들고 내담자는 “똥은 냄새나고 더럽다. 찌꺼기이다. 싸워할 때 똥을 없애고 싶어서 항문청소를 열심히 한다. 항문청소를 하는 것은 게이 고민과 관련 있다. 게이 고민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남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배설물인 똥은 황금과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 가장 무가치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과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해서 똥은 긍정적 감정의 분출을 의미한다(Jung, 1985/2006). 내담자는 이제 자신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조개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2개의 가리비를 보며 바다에서 가리비 껍데기 위로 아름답게 떠오른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성한 탄생을 떠올렸다.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잘려진 고환으로부터 나온 정자로 인해 바다 거품이 수태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왕성의 아들인 크로노스는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아버지를 거세시켰다(Graves, 1992).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긍정적 아니마로 내담자의 게이 고민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과 사람을 사귀고 싶은 염원으로 보여진다.

돌로 만든 원 밖의 조개에 진주 두 개와 고동 작은 것이 들어있다. 특히 하얀 진주는 얻기 어려운 보물, 영, 광명, 지혜이다(Cooper, 1978/1994; de Vries, 1976). 드디어 심혼에 가라앉아 있었던 빼앗겼던 보물이 나타났다. 그는 바닷속 깊은 곳에 조개껍데기로 가리워져 있던 심혼의 보물, 자기를 만난 것이다. 고동은 소리를 내고 울리게 한다. 이 고동은 내담자 내면의 소리와 연결해 줄 것이다.

아빠의 등에 아들이 업혀 있고 쌓인 눈은 포근하게 보인다. 내담자는 우체통에 ‘라인캐릭터 이벤트 당첨권’이 와 있을 거 같다고 한다. 연결을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라인’에 당첨된 것이다. 내담자는 그의 어린 시절의 억압된 감정과 연결됨으로 아버지와의 화해에 이르렀다.



사진 10. 모래사진 18 (94회기)

94회기는 치료 세션중 마지막 모래상자이다. 오른쪽 중앙에 검은 그랜드피아노가 놓여있고 노란 스마일맨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 스마일맨은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감정의 목소리를 내는 내담자의 살아있는 '자기' 에너지를 상징하겠다.

스파이더맨(2002, 샘 레이미감독)은 영웅시리즈의 영화이다. 평범하고 내성적인 학생 피터 파커가 우연히 유전자가 조작된 수퍼 거미에 물린다. 초능력을 갖게된 피터는 짝사랑하던 '메리 제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멋진 스포츠카를 구입하는데 초능력을 처음 사용한다. 이 스파이더맨 피커가 색색의 단지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서 내담자 쪽을 향해 접근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영웅의 에너지가 내담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스파이더맨도 내담자처럼 처음엔 내성적이고 불품없고 친구들에게 소외된 사람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영웅이 되고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악당들과 싸우며 영웅의 책임을 다해나가는 이야기처럼 내담자도 치료과정을 통해 영웅 신화의 스토리를 내면의 과정으로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영웅 에너지가 내담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 매우 역동적이다. 모래상자 #1에 왕의 죽음을 나타냈던 미라, 피라미드, 십자가가 세 명의 역동적인 영웅으로 살아났다고 보여진다.

색색의 파편들이 모여서 예쁜 색깔을 나타낸 그릇은 만화경 이미지이다. 만화경 이미지는 뒤범벅이 된 잡다한 파편들을 모아서 균형 있고 아름다운 심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신의 모든 요소들이 '중심'을 갖게 될 때 정신에 미치게 되는 질서를 상징한다(Ackroyd, 1993/1997). 내담자는 지루하고 오랜 치료의 마지막 모래상자에서 치료의 파편들이 모여 '중심'을 갖게 되고 진정한 자기의 표현으로 나타남으로써 질서를 갖게 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 그릇은 또한 스파이더맨을 담아주는 용기로서 남성성의 발달과 자아의 분화를 가져올 내면의 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아누비스가 등장한다.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가진 고대 이집트의 죽은 자들의 신이며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다. 아누비스는 특히 오시리스가 세트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에, 그의 시체에 방부 처리를 가했다고 한다. 오시리스의 부활을 도왔고 오시리스가 부활해 명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도 그를 보좌해 사망자를 인도하는 책임을 졌다. 즉 왕의 부활을 도운 망자의 신으로, 모래상자 #1에서 미라, 피라미드, 그리스도 세 왕의 죽음과 부활에 관여하여 새로운 왕으로의 탄생을 돕는다는 상징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누비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헤르메스와 동일시되어 헤르마누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헤르메스는 영혼을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신이며, 경계선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인간적 영역과 신성한 영역 사이의 중재자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입장에서 헤르메스는 개인 심리와 무의식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Edinger, 1994/2001). 그러므로 아누비스는 내담자의 무의식과의 연결을 지속시키는 상징이며, Edinger (1992)가 말한 자아와 자기를 연결하는 축이 되겠다. 그의 손상되었던 축은 회복되었다. 그리

고 모래상자#1에서 폭포로 단절되었던 양 극단의 세계는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과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 왼쪽의 검은 여성피겨이다. 왼쪽의 여성 피겨는 원시적인 흑인 여성이며 매우 육감적인 형태를 하고 있고 팔에 물 항아리를 들고 스파이더맨 쪽으로 향하고 있다. 내담자는 그녀를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죠”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주민 복장을 한 흑인 여성이다. 물항아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릇이다. 이제 내담자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아님아, 즉 내담자의 원초적인 에로스가 출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흑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님아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그림자 측면에 머무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나 피겨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유독 크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후 97회기, 마지막회 상담 시 꿈을 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사귀자고 했다. 20대 여성이었는데 내가 거절을 했는지 승낙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난다”고 했다. 꿈에서도 내담자의 아님아는 내담자에게 결합하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내담자에게 생기와 활기를 주고, 감정과 연결된 자유로운 인격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마지막 상자에 나타난 아님아와 마지막 세션에서의 꿈에 나타난 아님아 모두 Jung이 말한 생명증진 에너지를 주고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아님아 원형(Jung, 1984/2002)의 역할에 일치한다. 그러나 내담자는 꿈에서도 이 여자와 아직 사귀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갈등과 망설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내면의 아님아와 좀 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겠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어머니의 미숙한 돌봄과 아버지의 성학대 외상으로 인해 극심한 강박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던 남자 청소년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확립해가며 남성성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 사례이다. 이 내담자는 학교공포증,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는 심한 강박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한 성정체성의 갈등 등의 문제로 고통 받았다.

전체 97회기 동안의 치료과정을 Neumann의 자아발달 5단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1단계인 1회-7회기의 모래상자는 남근기적-지하세계의 단계로 수동적이고 좋은 어머니의 원형에 의해 이끌려지는 단계이다. 심리적 모권적 세계인 이 단계에서 2회기에 만든 풀밭과 3회기의 연꽃은 Neumann이 이야기한 모권적 무의식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 동안의 내담자의 경험은 무력하기도 하고 전지전능하기도 한데 2회기 모래상자에 나타난 피라미드, 미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모두 왕의 죽음과 함께 내담자의 무력함과 혼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단계 마술적-남근기적 단계는 8회-42회기에 해당하는데 어린 자아

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머니 원형에 의해 결정된 채로 남아 있는 단계이다. 미숙하고 어린 자아는 8회기에 슈렉이라는 영웅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미숙하여 팽창되고 열등한 자아로 나타났지만 결국 영웅의 여정을 걸어갈 치료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26회기에 등장한 남근을 상징하는 검은 돌하루방 피겨도 이 단계에 나타나는 신성한 신화적 주제와 희생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징적인 것은 2단계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인데 이는 내담자의 자아가 너무 약하여 내적 갈등을 시작하는데에도 오랜시간이 걸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근친 성학대 외상은 억압되어 있고 갈등이 드러나기에도 어려운 문제이다. 3단계 마술적-호전적 단계는 43회부터 65회까지로 이 단계 동안 자아가 모권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시작한다. 피아노 배틀 장면과 만달라 형태를 보여주는 검은 기차길의 모래 그림에 내담자 내면의 극심한 갈등과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 동안 내담자는 갈등과 싸움을 극복하며 성학대 트라우마를 폭로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억압된 분노와 불안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내적 무의식의 차원과 싸워서 의식의 빛을 향해 나오게 되었다. 4단계 태양적-호전적 단계는 66회부터 85회까지로 하얀 마녀 피겨가 내담자의 동성에 충동을 없애려 칼을 쳐든 모래그림에서 태양, 즉 남성성을 동일시하고 모권적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호전적 단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노와 어린 시절이 연결되며 내담자는 집단인 학교 생활의 적응과 대인관계가 편안해지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인 태양적-합리적 단계는 86회부터 97회까지로 빼앗겼던 자기를 상징하는 진주가 나타나고 감정적 분출의 상징인 똥덩어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모래상자에서 현대판 영웅의 신화인 스파이더맨이 내담자에게 역동적으로 다가옴으로써 남성적 에너지가 내담자에게 주입되고 연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상자에서 나타난 육감적이고 원시적인 검은 여성 피겨는 내담자의 내면에서 앞으로 통합될 아니마라고 할 수 있다.

주호소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는 특히 부정적인 부성 콤플렉스와 관련된 동성애적인 충동과 싸워야 했으며 이 때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용과 싸워 이기는 영웅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적인 측면에 대한 죄책감이 완화되었다. 꿈을 통한 무의식의 폭로로 이어졌고 아니마 측면이 활성화되면서 가족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 용기를 내면서 개선할 수 있었다. 학교공포증에서도 벗어나며 집단에 적응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쳤으며, 여자 친구들과 불편한 관계도 해소되고 베스트프렌드인 남자친구와도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외상의 폭로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극심한 강박증이 거의 모두 완화되었다.

내담자는 아버지의 성학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식하는 혼란과 성학대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치료과정을 통해

서론에서 밝혔듯이 근친 성학대 경험이 있는 소년인 내담자는 무의식적으로 침묵의 공모자가 되었었고, 성정체성 혼란과 동성애자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죄책감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낮은 자존감, 불안, 분노, 대인관계의 어려움, 수치심, 자기비난 등 근친 성학대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도 일치하고 있다.

모래놀이치료과정 동안 보호되고 안전한 공간과 감정이 수용되고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억압되어 왔던 무의식의 공포와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남성성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감정적, 여성적 측면 즉 아니마와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정체감 혼란의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자신의 혼란과 갈등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게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례만을 사례연구로 탐색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 근친 성학대 외상이 있는 남자 청소년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모래놀이치료 이론과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탐색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안전하고 보호적인 공간과 치료자와의 수용적인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표현한 무의식의 작업이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희 (2002). 근친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현숙 (2013). 만화캐릭터에 빠진 소이증 장애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연구. 한국놀이치료 학회지 16, 33-62.
- 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근친 성학대 피해 아동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199-240.
- Ackroyd, E. (1993). *A Dictionary of Dream Symbols with an introduction to dream psychology*, London: Cassell. (Trans. into Korean in 1997)
- Alexander, P. D., Anderson, c. L., Brand, B., Schaeffer, C. M., Grelling, B. Z. & Kretz, L. (1998). Adult attachment and longterm effects in survivors of incest. *Child Abuse and Neglect*, 22(1), 45-61.
- Allers, C. T., Benjack, K. J., & Allers, N. T. (1992). Undersolved childhood sexual abuse: Are older adults affected?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14-17.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s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1).

Brennan, B. A. (1987). *Hands of light: A guide to healing through the human energy field*. New York: Bantam Books.

Carey, L. J. (1999). *Sandplay Therapy with Children and Families*. N.J.: Jason Aronson, Inc. (Trans. into Korean in 2002).

Chandy, J. M.; Blum, R. W. & Resnick, M. D. (1997). Sexually abused male adolescents: How vulnerable are they?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6(2)* 1-16.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symbols*. London: Thames and Hudson. (Trans. into Korean in 1994).

Darves-Bornoz, J. M., Choquet, M., Ledoux, S., Gasquet, I., & Manfredi,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adolescents reporting sexual assaul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3(3)*, 111-117.

de Young, M. (1982). Innocent Seducer of Innocently Seduced: The Role of the Child Incest Victim.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1(1)*, 56-60.

de Vries, A. (1976).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Amsterdam: North-holland.

Edinger, E. F. (1992). *Ego & Archetype: Individuation and the Religious Function of the Psyche*. Boston: Shambhala.

Edinger, E. F. (1994). *The Eternal Drama*. Boston: Shambhala. (Trans. into Korean in 2006).

Friedrich, W. N. (1995). Managing disorders of self-regulation in sexually abused boys. In M. Hunter(Ed.), *Child survivors and perpetrators of sexual abuse: Treatment innovations*, 3-23. New York: Lexington Books.

Graves, R. (1992). *The Greek myths*. London: Penguin Books.

Holmes, W. C. & Slap, G. B. (1998). Sexual Abuse: Definition, Prevalence, Correlates, Sequelae,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0 (21)*, 1855-1862.

Johnson, K. (1989). *Trauma in the lives of children*. California, NY: Hunter House.

Jung, C. G. (1984). *Archetyp und Unbewußtes*.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2)

Jung, C. G. (1985). *Erlö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4)

Jung, C. G. (1985). *Heros und Mutterarchetyp*.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6)

Jung, C. G. (1984). *Personlichkeit und Übertragung*.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4)

Jung, C. G. (1985). *Symbol und Libido*.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5)

Jung, C. G. (1991). *Traumsymbole des Individuationsprozesse*.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2)

Kalff, D. M. (2000). *Sandspiel: Seine therapeutische Wirkung auf die Psyche Mit einem Nachwort von Martin Kalff*. München: Ernst Reinhardt Verlag. (Trans. into Korean in 2012)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laveradale, CA: Temenos press.

- Kast, V. (1994). *Vater-Töchter Mutter-Söhne*. Kreuz: Stuttgart. (Trans, into Korea in 2007)
- Kelly, R., Wood, J. J., Gonzalez, L. S., MacDonald, V., & Waterman, J. (2002). Effects of mother-son incest and positive perceptions of sexual abuse experience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linic-referred men. *Child Abuse and Neglect*, 26(4), 425-442.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164-180.
- McCormack A., (1986). Runaway youths and sexual victimization: Gender differences in an adolescent popul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10, 384-395.
- Moore, R. & Douglas G. (1991). *King, Warrior, Magician, Lover: Rediscovering the Archetypes of the Mature Masculin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Trans. into Korean in 1997)
- Neumann, E. (1973). *The child*. Boston, MA: Shambhala Publications.
- Neumann, E. (2004). *Ursprungsgeschichte des Bewusstseins*.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7).
- Rogers, C .N. & Terry, T. (1984). Clinicalintervention with boy victims of sexual abuse. In I. R. Stuart & J. G. Greer(Eds.), *Victims of sexual aggression: Treatment of children, women, and men*(pp. 91-104). NewYork: Van Nastrand Reinhold Company, Inc.
- Rudd, J. M., & Herzberger, S. C. (1999). Brother sister incest-father-Daughter incest: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Child Abuse and Neglect*, 9, 915-928.
- Sanders, S. M. (2000). *Stories of struggle and survival: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hool experience by incest survivors*. Do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Washington.
- Sebold, J. (1987). Indicators of child sexual abuse in males.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8(2), 75-80.
- Shrier, D. & Johnson, R. L. (1988). Sexual victimization of boys: An ongoing study of an adolescent medicine clinic population.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80(11), 1189-1193.
- Spaccarelli, S. (199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child sexual abus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 340-362.
- Turner, B. A. (2005).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loverdale: Temenos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9)
- Weinrib, E. L. (2004). *Images of the Self*. Cloverdale, Ca: Temenos Press.
- Winter, R. (1999). Sandplay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Sandplay Therapy*, 8(1), 91-105.

Internet

<http://blog.daum.net/windada11/8750639>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Vol.7 No.2.

<http://blog.daum.net/colorplaying/2475140>

<https://ko.wikipedia.org>

투고일 : 2016. 10. 31
수정일 : 2016. 11. 28
게재확정일 : 2016. 12. 01